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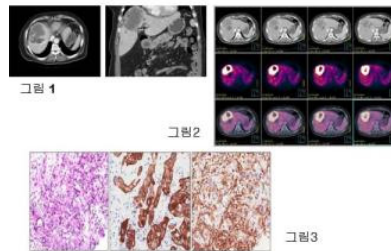
■ S-179 ■

급성악화의 임상적 경과를 보인 순수 간내 육종양 담관암 1예

동아대학병원 내과학교실¹, 해부병리학교실²

*유승희¹, 노명환¹, 김병근¹, 우수미¹, 박소영¹, 서정민¹, 정진숙²

간내 육종양 종양은 매우 드문 질환이다. 국내에 보고된 육종양성 변화를 보인 순수 간내 담도암 병변은 거대 우심실 종양 혈전을 동반한 간내 육종성 담관암 1예 뿐이며, 그외 병합형 간세포-담관암과 간의 육종성 담관암 각 1예가 전부이다. 우리는 거대한 간 종괴와 간혈적인 발열의 임상증상을 보인 순수 간내 육종양 담관암으로, 전신적 항암요법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임상악화를 보인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복부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약 8cm의 거대한 간 종괴가 간 우엽에 발견되었고 저음영의 분엽성을 띠며 담관침범 및 담관확장, 심형경막, 종간, 동맥대정맥간의 다발성 림프절확대 소견과 함께 간동맥 조영시 약한 변연부 조영증강 소견을 보였다. 간조직검사에서는 분화가 나쁜 상피양 세포와 과염색성의 큰 핵을 가진 방추형 세포가 보였으며, 면역조직화학적 검사에서 종양세포들은 cytokeratin (CK) 8, cytokeratin (CK) 19, vimentin 항체에 양성반응을 나타내었으며, hepatocyte specific antigen (HSA) 및 AFP 항체에는 음성을 나타내어 병리조직학적 및 면역조직화학적 검사를 종합하여 간 종괴 병변을 육종양 담관암으로 진단하였다. 진단 당시 황격막 침범소견 및 다발성 임파절 침윤 소견등 진행된 병기로 5-fluorourcil 및 cisplatinin 병용요법으로 전신 항암화학요법을 하였으나 빠른 악화 소견으로 환자는 진단 후 3개월 뒤 사망하였다.



■ S-180 ■

진행성 위암 수술 중 우연히 발견된 림프절의 이소성 췌장 1예

동아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학교실

*한지선, 최석렬, 장진석, 백양현, 이정현

이소성 췌장은 해부학적으로 혈관 및 신경을 포함하여 정상 췌장과 연결성이 없는 췌장 조직으로 정의되며, 주로 위, 십이지장, 근위부 공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림프절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저자들은 진행성 위암을 진단받고 위아전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복강내 림프절에서 이소성 췌장을 확인하여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과거력상 특이 병력 없는 69세 남자 환자가 전신 쇠약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말초혈액검사에서 혈색소 7.4 g/dL, 암배아 항원 수치 35.16 ng/mL이었으며 대변 잠혈검사에서 양성을 보였다. 상부 위장관내시경 검사에서 하부 위체부에서부터 전정부에 걸쳐서 점막 유착성을 보이는 궤양 침윤형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조직 검사상 분화도가 좋은 선암으로 확인되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항문연 상방 25 cm에서 약 4 cm 크기의 유경성 용종이 관찰되어 내시경하 용종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병리 조직 소견에서 절제면이 깨끗한 상피내암증으로 확인되어 완전 절제로 생각되었다. 복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위 전정부의 벽이 불규칙적으로 두꺼워져 있었으며 위 주위의 림프절 종대와 함께 석회화된 림프절이 복강내에서 다발성으로 관찰되었다. 환자는 위아전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병리 조직 소견에서 장막하층까지 침윤하였고 림프절, 혈관계, 신경계 침범이 없는 분화도가 선암으로 확인되었다. 수술 당시 제거한 소만부의 림프절에서 췌장의 샘파리와 췌도가 있는 이소성 췌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석회화된 림프절의 조직에서는 만성 육아종성 염증이 보였고 항산성 염색은 음성이었으나 결핵균 PCR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확인되어 현재 결핵약 복용 중이다.

